

민실위 보고서

2012년 8월 10일(금)

넘치는 녹조 보도, 허전한 이유는?

1. '4대강 때문?'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

전국 주요 하천에 번지고 있는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 자칫 전국적인 식수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그래서 <뉴스데스크>도 이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뉴스가 녹조 현상을 보도하면서도 '논란의 핵심은 계속 비껴가고 있다'는 것이 민실위 위원들의 지적이다. '팔소 없는 찌빵'과도 같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이달 들어 2일, 4일, 6일, 8일, 9일 등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자주, 또 '현장출동M'이나 '집중취재' 등의 타이틀을 붙여 녹조 현상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보도에서 눈에 띄는 경향은 보도의 초점이 대부분 팔당호 등 한강 수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4일과 8일 리포트에서 낙동강 상황을 잠깐씩 언급한 것이 예외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타 언론에서 집중 보도하고 있는 '녹조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보도가 매우 부족하다. <4대강 사업과 녹조와의 연관성 논란>은 4대강 사업으로 많은 보가 건설된 낙동강 수계를 두고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녹조의 원인으로 정부는 '폭염과 가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단체는 '4대강 보 건설 때문'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측의 주장은 4일과 9일의 <뉴스데스크> 리포트에서 짧게 소개됐을 뿐이다.

반면 <한국일보>, <한겨레>, <동아일보> 등 많은 언론이 이 논란을 집중적으로, 또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으로는 SBS <8시뉴스>가 지난 8일 한강의 녹조 상황을 먼저 전한 뒤, 곧이어 '영남권 '젓줄' 낙동강, 극심한 독성조류에 몸살'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따로 내보냈다. 녹조의 원인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와 정부의 주장을 평면적으로 대비시킨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낙동강 수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는 것만으로도 평가 받을 만하다.

그 동안 MBC뉴스가 4대강 문제 보도에 유독 소홀했다는 점은 굳이 여기서 다시 거론하지 않겠다. 대신 공영방송인 MBC는 녹조의 원인에 대한 독자적이고 심층적인 취재와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짚어야겠다. 왜냐하면 만약 '녹조가 4대강 보 건설 때문'이라고 한다면 문제의 해법은 '4대강 보 수문의 개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4대강 보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강의 부영양화를 막기 위한 '오수처리 시설의 증설' 등 다른 장기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이라도 넉넉한 인원으로 취재팀을 꾸려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런던올림픽이 이 문제를 얼렁뚱땅 넘길 수 있는 핑계거리는 결코 될 수 없다.

2. '축구 뉴스데스크'?

지금 이 나라에는 올림픽 말고도 중요한 현안이 정말 많다. 기록적 폭염 속에 녹조가 4대강을 뒤덮었고, 전력수급 문제는 매일매일이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여당의 공천헌금 파문은 대선구도까지 흔들고 있다. 경기 위축과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삶을, 용역 폭력은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뉴스데스크>는 이런 현실을 균형 있게 전하고 있지 못하다. 뉴스 편집을 보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노골적인 '홀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홀대의 대표적 패턴은 '금메달 소식'으로 시작해, 30분이 좀 넘어 '올림픽 이모저모' 리포트로 끝나는 '올림픽 도배 편집'이다. 올림픽 개막 이후 13일 동안 톱뉴스를 시작으로 올림픽 아이템만 내리 15꼭지 이상 방송한 경우가 6차례에 달한다. 반면 올림픽 개막 이후 일반 뉴스가 톱을 차지한 날은 박지원 검찰 출석, 폭염, 녹조를 각각 톱으로 다룬 딱 3일 뿐이다.

지난 7일에는 뉴스 시작 직후부터 올림픽 소식을 19꼭지로, 무려 34분 넘게 이어서 전했다. 나중에 보도국장으로부터 특종상까지 받은 '검찰, 현기환 통화내역 확보' 단독 리포트는 24번째로, 뉴스 시작 40분 만에 방송되는 '굴욕'을 당했다.

다음 날인 8일에도 17꼭지를 31분 넘게 올림픽 리포트로만 방송했다. 지역사의 경우 보통 9시 35분을 전후로 해서 로컬 뉴스로 넘어 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지역 시청자들이 볼 수 있는 일반 아이템 리포트는 서너 개에 불과했다. 때문에 이날 지역 시청자들은 새누리당 공천 비리 뉴스나 전력난 관련 뉴스는 보지 못했다.

일요일이었던 지난 5일의 '축구 뉴스데스크' 편집은 비정상 편집의 결정판이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올림픽 축구 4강 진출과 관련해 무려 네 블록을 털어 21꼭지를 보도했다. 물론 기쁜 소식이지만, 휴일 뉴스에서 시작 이후 35분 동안 오로지 '축구'만 보도한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KBS가 6꼭지, SBS가 9꼭지를 다룬 것보다 크게 대비된다. 보도국 간부들이 뉴스를 편집하는 원칙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